

## 문화와 어휘 인식부족에 따른 의사소통의 문제점\*

박종호  
(한남대학교)

Park, Chong-Ho. (1996). The problems of communication in the lack of understanding culture and vocabulary. *English Teaching*, 51(4), 127-150.

There are some scholars who have stressed the importance of understanding culture and have introduced various methods of teaching and applying cultural patterns in communication in Korean schools. This paper discusses several points of language and culture concerning body language, some vocabularies of auto parts, the meaning of vocabularies including colors, misused English which prevails in Korea, proverbs, and different expressions in English dialogue interviews between Americans and Korean students revealing different thinking patterns. The term "culture" in this paper is limited to "a shared way of life." The aim of this paper is to research with questionnaires the level of college students in the above listed fields. The result of this research shows that Korean students are at a poor level of understanding target language culture and vocabularies in daily life which cause barriers in communications. Problems are pointed out and discussed in Chapter III, 1-6. This paper concludes with seven suggestions for the solution of problems in language and cultural communication.

### I. 문제 제기와 목적

언어의 존재 목적이 의사소통이므로 의사소통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 분야는 어느 한 부분만을 강조할 수는 없다. 의사소통 능력이란 거대한 과제를 놓고 접근방법을 학문적으로 여러가지 측면에서 시도해 왔고 시도한 것을 꾸준히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학문적으로 어느 분야가 강조되어 왔고 어느 분야가 등한시 되어

---

\* 본 논문은 1995년도 한남대학교 교비 학술연구비 지원과 어학연구소 project에 따라 연구되었음.

왔는가를 조사하여 등한시된 분야를 조사하여 그 결과 의사소통에 어떤 문제점을 던져 주고 있는가를 찾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Ide (1982: 61)는 한국의 영어 교사들이 등한시하고 있는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the social and cultural aspects of the English language have been neglected by the teachers of English in Korea, and that greater efforts are needed on the part of the teachers to provide the students of English with better instruction in the area of culturally appropriate English language use.

한국의 학자들 중 일부는 언어와 사회 문화에 관한 밀접한 연결성을 논문을 통하여 또는 강의를 통하여 역설해 온 것도 사실이다. (박명석, 1983; 박형기, 1982; 최은경, 1993 등). 그러나 한국의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에 있어까지도 언어와 문화를 밀접하게 관련지어 계획된 학습을 하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학생들이 문화와 어휘에 관한 인식부족이 얼마나 크며 의사소통에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설문지에 의한 통계수치로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문화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세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 생리적 성장(biological growth) 둘째, 지적교양(intellectual refinement) 셋째, 공유된 생활양식(a shared way of life)이 있는데(최용재, 1995: 141) 이 논문은 공유된 생활양식의 일부에 국한될 것이다. 범위는 영어와 미국문화를 중심으로 몸짓언어, 차에 관한 어휘, 색이 함축하고 있는 어휘, 한국에서 잘 못 쓰이고 있는 영어, 격언, 인터넷 상에 나타난 사고방식과 영어표현의 차이로 제한될 것이다.

## II. 대상과 설문 설정

### 1. 대상자

조사대상자수는 총 574명이다. 1996학년도 한남대학교 신입생중 국어국문학과, 일어일문학과, 경제학과, 전자공학과, 영어교육학과, 법학과, 화학과를 선정하였고 학생수 360명 중 322명이 설문조사에 응했고 이들을 대상으로 몸짓언어와 차에 관한 어휘를 조사하였다. 이들의 수능시험 평균성적은 200점 만점에 114.4점이고 전국 44개지역과 105개 학교에서 온 학생들이었다.

표 1  
대상자 수학적능력 성적

학 과	인 원	수능점수 하한선	수능점수 상한선	평 균
국어국문학과	40	95.8	126.9	113.0
일어일문학과	40	108.7	128.9	118.7
경제학과	40	100.3	120.1	110.8
전자공학과	60	108.7	131.9	117.8
영어교육학과	40	112.2	142.0	121.0
법학과	80	89.3	151.4	113.4
화학과	60	62.3	118.9	105.7
7개학과	총 360			총평균 114.4

- \* 참고: 1. 수능성적은 200점 만점  
2. 근거: 한남대학교 교무제 96-59호 (1996.4.9)  
3. 설문지 응답자수 322명

한남대학 영문학과 3학년 49명을 대상으로 색이 함축하고 있는 어휘와 한국에서 잘 못 쓰이고 있는 영어를 조사하였다. 한남대학교 영문학과 4학년 50명을 대상으로 속담(격언)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끝으로 한남대 영문학과 3학년 53명 한남대 영문학과 4학년 55명 배재대 영문학과 45명을 대상으로 인터뷰상에 나타난 사고방식과 영어표현 차이를 조사하였다. 단 3학년 4학년이 두번씩 반복된 것은 학년당 120명씩 있으므로 설문지가 다르거나 다른 그룹의 3학년과 4학년생들이다.

## 2 설문설정

몸짓언어 (body language)는 Zanger (1985)와 Klopff와 Park (1982)에 근거를 두고 미국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고 있는 몸짓행위 20개를 골라 문항을 만들어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합이 6년간 영어를 학습하는 동안 어느 정도 배웠는가를 알아 보려 하였다. 2) 차에 관한 어휘는 한국이 이미 세계자동차 수출국 5위 (1995)에 오른 기록을 가지고 있다. 한국인은 차문화를 떠나서 살 수 없는데까지 와있고 차문화 생활은 한국인에게 보편화 되어있다. 학생들에게 차에 관한 부품을 우리말로 적게 한 후 가장 일반적인 것부터 25개를 골라 문항으로 선정하여 바른 영어를 쓰고 있는가를 조사하였다. 3) 색이 함축하고 있는 어휘로는 색은 곧 언어라는 관점에서 가장

흔한 색 7개 (black, blue, brown, green, red, white, yellow)를 골라 이들이 합축한 어휘에 관한 35문항을 만들고 응용문 한 개를 더 추가하여 36문항을 만들었다. 4) 한국에서 잘 못 쓰이고 있는 영어 즉, 영어는 영어인데 영어 아닌 영어를 찾아 10개를 골라 문항으로 만들어 옳은 영어 사용을 유도하려 하였다. 5) 격언(속담)은 한 나라의 사고의식과 전통문화를 나타냄으로 말의 품위와 유모어 감각을 높인다. Houghton (1981)과 조화유 (1995)에 근거를 두고 우리말 속담과 공통된 것을 골라 20문항을 만들어 의사소통과 연결시켜 보았다. 6) 인터뷰상에 나타난 사고방식과 영어표현 차이는 입사 (入社) 인터뷰에서 가장 기본적인 대화 (basic interview dialogues) 가운데 10개를 문항으로 만들어 한국인 영어 화자가 얼마만큼 한국식으로 말하는가와 영어식 영어와 원어민의 의식에 접근하고 있는가를 조사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 III. 문화와 어휘 인식

우리는 어떤 언어를 사용할 때, 같은 말을 사용해도 문화권이 다름에 따라 의사전달은 화자의 의사대로 되지 않고 충격을 받을 때가 많다. 이러한 현상을 Tinsley (1972: 2-6)는 문화적 충격 (culture shock)로 규정하였다. 한 문화권에 집착해 있는 사람을 문화에 묶인 사람 (cultural-bound person)이라고 하는데 문화적 충격을 받지 않고 한 문화권에 묶인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하여 문화적 이해를 외국어 교육목표에 필수 요건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장에서는 한국의 영어교육에 있어서 영어학습자들이 언어에 관련된 미국문화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와 있는가를 알아보고 의사소통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지적하고자 한다.

#### 1. 몸짓언어 (Body language)

세계 여러나라를 여행하거나 유학 또는 장단기 체류한 사람이라면 문화적 충격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비언어적 요소가 많은데 그 중 몸짓동작 (머리, 눈, 입술, 손, 발, 말소리에 따른 표정 등) 또 거리유지 (proximity), 몸접촉 등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 전달은 구어적 의미 전달보다 훨씬 더 강하면서도 자연스럽다. 이러한 점에서 Birthwhistell (1970: 1158)은 말을 통한 사회적 의미는 30-35%에 불과하고 비언어적 요소가 나머지 65-70%의 의미전달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연구는 많은 지지를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Stevick, 1982: 163; Abercrombi, 1968: 55; 박명식, 1969: 53; 박상욱, 1985: 487-491). 한국 모 항공회사의 부기장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여자 어린이의 팔을 잡다 성폭행 누명으로 징역 3년을 살게 된 일이 있

다 (국민일보 1994. 8. 18). 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4월 12일 오후 4시경 숙소인 로스앤젤레스 공항 인근 호텔에서 골프연습장에 가기 위해 공원을 지나가다가 여자 어린이 4명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영어회화도 할 겸 사랑스럽다고 귀여워서 헬로 하면서 인사를 건넸으나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 같아 자신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려 했다.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하면서 정지시키려고 잡는다는 것이 팔과 가슴이 두손에 잡혀 (일초정도) 깜짝 놀라 손을 놓았다.」 이것은 미국문화를 모르는데서 발생한 한 사건이었다.

### 1) 설문내용

한남대학교 신입생 (1996) 중 3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내용이다. 설문내용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보편적으로 몸짓에 익숙한 것들이다. 그러나 같은 행위가 다른 의미를 주고 있다는 점을 얼마나 알고있는가 시험한 내용이다.

1. 대화중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지 않는 행위
2. 어른의 얼굴이나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행위
3. 선생님의 눈을 보지 않고 이야기하는 행위
4.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이 연설할 때 눈을 지긋이 감는 행위
5. 이성 (the other sex)이 상대방과 눈맞춤을 오랫동안 하는 행위
6. 동성간에 눈맞춤을 오랫동안 하는 행위
7. 엄지와 인지 (집게손가락)로 동그랗게 원을 만드는 행위
8. 열이 오르거나 언쟁을 할 때 손가락으로 상대방을 가리키는 행위
9. 손바닥을 위로하고 집게손가락을 꼬부렸다 폈다 하는 행위
10. 손바닥을 아래로 하고 손가락을 위 아래로 움직이는 행위
11. 엄지를 아래로 향하게 하는 행위
12. 지나가는 차를 보고 엄지로 차 가는 방향을 가리키는 행위
13. 오른손 인지로 왼손 인지 등을 떼거나 문지르는 행위
14. 집게손가락 등에 가운데 손가락을 포개는 행위
15. 코딱지를 후비는 행위
16. 뒤에서 예고 없이 반갑다고 어깨를 살짝 치는 행위
17. 동성끼리 팔짱을 끼거나 손을 잡고 걷는 행위
18. 밥상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코푸는 행위
19. 두 팔을 번쩍 들어 원을 그리면서 두 손을 잡는 행위
20. 왼쪽 안주머니에 오른손을 넣는 행위

## 2) 조사결과

표 2  
몸짓언어

학과 정답수	국어국문 학 과	일어일 문학과	경제학과	전자공 학 과	영어교육 학 과	법학과	화학과	합계 (평균)	
0 개	7명 (19.4%)	10명 (29.4%)	3명 (6.98%)	18명 (34.6%)	0명 (0%)	3명 (5%)	9명 (16.7%)	50명 (15.6%)	
1-4 개	21명 (58.3%)	16명 (47%)	12명 (27.91%)	20명 (38.5%)	28명 (75.7%)	50명 (76%)	19명 (35.2%)	166명 (51.6%)	
5-8 개	7명 (19.4%)	8명 (23.6%)	21명 (48.84%)	14명 (26.9%)	9명 (24.3%)	13명 (20%)	25명 (46.3%)	97명 (30.1%)	
9-12 개	1명 (2.8%)	0명 (0%)	7명 (16.28%)	0명 (0%)	0명 (0%)	0명 (0%)	1명 (1.8%)	9명 (2.8%)	
13-16 개	0명 (0%)	0명 (0%)	0명 (0%)	0명 (0%)	0명 (0%)	0명 (0%)	0명 (0%)	0명 (0%)	
7-20 개	0명 (0%)	0명 (0%)	0명 (0%)	0명 (0%)	0명 (0%)	0명 (0%)	0명 (0%)	0명 (0%)	
합 계	36명 (100%)	34명 (100%)	43명 (100%)	52명 (100%)	37명 (100%)	66명 (100%)	54명 (100%)	322명 (100%)	
학습 경험	유	0명 (0%)	0명 (0%)	0명 (0%)	1명 (2%)	7명 (19%)	1명 (2%)	0명 (0%)	9명 (2.8%)
	무	32명 (88.9%)	32명 (94.1%)	43명 (100%)	51명 (98%)	30명 (81%)	65명 (98%)	54명 (100%)	307명 (95.3%)
	비고	4명 (11.1%)	2명 (5.9)						6명 (1.9%)

20개 문항을 6개로 분류하여 통계를 내보았다. 322명중 0점을 맞춘 학생이 50명 (15.5%)이고 1-4개를 맞춘 학생이 166명 (51.6%), 5-8개를 맞춘 학생은 97명 (30.1%), 9-12개 문항을 맞춘 학생은 9명 (2.8%)이고 13-16, 17-20개 문항을 맞춘 학생은 각각 0명 (0%)으로 나타났다. 몸짓언어에 대한 인식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에서 몸짓언어에 대한 학습을 한 일이 있는가라는 물음에는 322명중 9명 (2.8%)이고 있다고 답하였고 307명 (95.3%)이 학습한 적이 없다고 답하였다. 기타 무응답자가 6명 (1.9%) 이었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설문에 대한 답을 달기로 한다.

1. 흥미가 없다. 2. 존경한다든가 관심이 있다. 3. 거짓말 할 때. 4. 상대방에 대한 거부행위. 5. 성교를 제한할 때. 6. 호모들의 상호신호를 보냄. 7. OK 또는 fine 의 뜻. 8. 상대방에게 위협적 행위. 9. 오라는 행위. 10. 동물을 보고 오라는 행위.

11. 안좋다 (넘버텐의 뜻), 12. 차를 태워달라는 신호, 13. 자기가 한 어떤 행위에 대해 부끄럽다는 신호, 14. 부럽다는 신호, 15. 미국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혐오적 행위, 16. 예고없이 공격적 행위, 17. gay들의 애정 표시 행위, 18.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 19. 상대방을 때려눕히려는 행위, 20. 권총을 빼려는 행위.

### 3) 문제점

의사소통상의 문제점의 예로 설문 중 2개만 들어 설명해 보자. 설문 3. "선생님의 눈을 보지않고 이야기하는 행위"는 미국에서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거절한다. 그러나 한국학생들은 선생님의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거북스럽게 느낀다. 설문 17. 동성끼리 팔짱을 끼거나 손을 서로 잡고 걷는 행위는 한국에서는 친한 사이를 의미하지만 미국에서는 동성연애자로 간주한다. 이러한 의사소통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문화교육은 매우 시급한 것이라 여겨진다.

## 2. 차에 관한 어휘 (Vocabularies about car)

한국에 있는 차수는 1천만대가 넘는다는 통계가 1995년에 발표된 바 있다. 인구 4인당 차 1대씩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차문화는 한국인에게 보편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차문화에 관한 의사소통을 영어로 하려면 가장 기본적 요소가 차 부품 (auto parts)에 관한 용어가 될 것이다. 차는 원래 미국에서 만들어진 발명품임으로 부품에 관한 용어는 영어가 원조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차생산업장, 차정비소, 차세일즈맨, 차이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차부품용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영어학습자라면 쉽게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중,고등학교 졸업생들이 6년간의 영어학습을 통하여 차에 관한 용어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를 필자는 조사해 보았다.

### 1) 설문내용

1996학년도 신입생 3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설문내용은 전문적인 것이 아니고 외관상으로 확실하게 볼 수 있고 가장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차부품용어를 학생들에게 적게 한 후 25개를 골라 시험했다. 원어에 가까운 단어에 비중을 두고 철자는 틀려도 문제시하지 않았다. 설문지에는 아래있는 영어는 없었다.





합 계	36명 (100%)	34명 (100%)	43명 (100%)	52명 (100%)	37명 (100%)	66명 (100%)	54명 (100%)	322명 (100%)	
차소유	유	26명 (72.2%)	27명 (79.4%)	34명 (79.07%)	25명 (48%)	33명 (89.2%)	43명 (65%)	38명 (70.37%)	226명 (70.2%)
	무	10명 (27.8%)	7명 (20.6%)	9명 (20.93%)	20명 (38.5%)	4명 (10.8%)	23명 (35%)	16명 (29.63%)	89명 (27.7%)
	비고				7명 (13.5%)				7명 (2.1%)

25개의 용어를 편의상 6개로 분류하여 통계를 내보았다. 322명중 0점짜리 학생이 87명 (27%)이나 되었고 1-5개를 맞춘 학생이 234명 (72.7%)이며 6-10개를 맞춘 학생은 1명으로 나타났다. 그 이외는 0%이고 정답자수는 실망에 가까울 정도였다. 집에 차가 있는가 하는 질문에는 226명 (70%)이 있다고 답하였고 없다고 답한 학생이 89명 (27.7%)이고 7명 (2.1%)의 학생이 무응답으로 비고처리 되었다.

### 3) 문제점

차생활문화에 관한 대화를 할 때, 기본적으로 차부품 용어를 잘못 알고 있을 때 의사소통에 심각한 문제점을 던져주고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두 가지 예를 들어 보기로 하자. 요즘 한국의 이름 있는 모 자동차 회사의 선전광고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스타일에 감동한다. 핸들링에 감동한다. 한국차의 자존심 크레도스. (MBC TV, 1996. 7. 7. 7 : 55)」. 이 문장을 영어로 옮긴다면 'We are moved by a style and handling. The pride of Korean car is credos.'가 될 것이다. 외국인인 들으면 차손잡이 (handle)에 감동한다고 이해할 것이니 무슨 광고 효과가 있겠는가. 핸들은 운전대라고 못을 박으면 오용된 영어사용의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또한 한국에서 power steering wheel이 power handle로 오용되고 있음은 묵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여기서 우리는 영어를 잘 가르쳤는가를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 3. 색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

은 세상은 많은 색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름답다. 햇빛은 칠색으로 구성되었고 칠색이 혼합하여 수많은 색을 낳고 인간은 그 색과 더불어 살고 있다. 색채의 연상과 유추는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난다. 사람은 어떤 소리라든가 형태, 맛, 냄새 등을 접하게 되면 그것을 색채와 관련시켜 마음속으로 유추하게 된다. 또 한편으로 색은 언어, 관습, 미신 등에 널리 침투되어 있다 (김화중, 1996: 207). 색채에 대한 우리의 정서적 태도는 우리가 쓰는 언어, 속어, 은어 및 일상회화 등에 잘 나타난다.

빨간색은 성자와 범죄자, 애국자, 무정부주의자, 사랑과 증오 연민과 전쟁 등을 동시에 나타내는 격렬한 색이다. red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격노라는 뜻이 있는데 이 뜻은 투우가 빨간 색을 보면 흥분한다고 믿었던 것에서 연유한 것이라 한다(김화중, 1996: 217). 사업에서 손해를 보았을 때 적자를 보았다고 말한다. Atlanta 올림픽 경기장에서도 색채가 곧 언어를 대신하여 message를 전달하고 있는 예를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었다.

## 1) 설문내용

영어 단어 중에는 문화적 유래를 근거로 하여 색을 포함한 것들이 많이 있다. 그 중 가장 일반적인 단어를 골라 36개의 문항을 만들어 한남대학교 영문학과 3학년 49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영문학과 3학년을 대상으로 한 것은 신입생에게 문화와 관련된 색채용어에 대한 시험은 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었고 영어를 아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 A. 밑줄 친 단어의 뜻을 쓰시오.

#### 1. Black

- 1) Your hands are black! Go and wash them.
- 2) He gave me a black look.
- 3) A lot of black gold is kept in the United States.
- 4) They bought butter on the black market.
- 5) My father was a blacksmith.

#### 2. Blue

- 1) He looked a bit blue tonight.
- 2) He tried to escape from blue stories.
- 3) He is a blue-collar worker.
- 4) Did you make a blueprint of that plan?
- 5) He got a blue ribbon in this field.

#### 3. Brown

- 1) She has become brown in the sea side.
- 2) Why don't you go out for lunch?  
I brownbag it to my office every day.

- 3) Brown nose is one who seeks favor from someone.
- 4) Do Koreans like boiled brown rice for their health?
- 5) She is in the brown study.

#### 4. Green

- 1) She is green with envy.
- 2) She is a green hand.
- 3) Do you like greenback?
- 4) Would you please show me a green card?
- 5) Some little plants grow in the green house.

#### 5. Red

- 1) His face turned red with furious anger.
- 2) We had a red year in 1995.
- 3) Send out a red light on all unnecessary expenses.
- 4) Many public officials are red tape in their working.
- 5) He is a redneck.

#### 6. White

- 1) He turned white with rage.
- 2) I rejected his offer with a white lie.
- 3) He is a white collar worker.
- 4) The meeting will be held in the White House.
- 5) I am not guilty. Please, make my name white again.

#### 7. Yellow

- 1) You could see him go yellow.
- 2) That rough player got a yellow card.
- 3) You'd better consult the yellow pages.
- 4) Koreans and Japanese are yellow races.
- 5) When enemy plans approach our company, we sound a yellow alert first.

### B.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부분이 뜻하고 있는 함축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And Mr. Nixon brought his own cheering section, his wife, Pat, and daughters, Tricia and Julie, dressed in red, white and blue respectively.

- *Newsweek* (곽효석, 1989: 55)

### 2) 조사결과

표 4  
색이 함축하고 있는 어의

문 제		학 년	문 제 수	응답자수	정 답 자 수		평 균
구 분	문제유형						
A, B	색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	영문 3	36문제	49명	1-6 개	0명	0%
					7-12개	8명	16.3%
					13-18개	29명	59.2%
					19-24개	9명	18.4%
					25-30개	3명	16.1%
					31-36개	0명	0%
					평균: 16.4개	평균: 45.6%	

필자는 설문용 신입생에게 문기에는 단어 수준이나 문화인식이 짧기 때문에 무리라 생각하여 영문학과 3학년을 선정하였다. 이들은 5학기 동안 영어를 전공하였으므로 어느 정도 의사표현이 가능하고 듣기수준도 높은 편이고 발음도 좋은 편이었다. 그러나 색이 함축한 단어의 의미시험에 좋은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위에 있는 표는 36개 문항을 6개로 분류하여 단어에 대한 인식도를 알아본 결과이다. 13-18개를 맞춘 학생이 29명 (59.2%)이고 그 이상은 급격히 정답률이 떨어지고 전체 정답률은 16.4개로 45.6%에 불과하다. 필자는 설문 B를 채점한 결과 정답자는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알았다. 설문에 대한 직역자만 발견하였다. (문제점 참조)

### 3) 문제점

단어는 무조건 외운다고 해서 외워지는 것은 아니다. 색이 함축한 단어들은 그 색을 이미 알고 있으므로 단어를 찾아보려고 노력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He is a red neck.' 하면 빨간 목으로 인식하려 한다. 미국 남부에서 무식한 백인 농장 노동자를 경멸조로 부르는 말이다. 문화적 유래를 알면 단어를 외우기 쉽다.

설문B는 Nixon이 국회에서 대통령 교서의 발표에 즈음하여 부인과 두 딸을 응원 단으로 데리고 나왔는데 부인 패트는 적색 딸 트리샤와 주리는 백, 청의 의복을 입고 있었다. Red, white, blue는 미국의 성조기를 뜻하여 함축적 의미는 애국심(patriotism)이라는 것을 미국인이란 모르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한국 학생이 그 의미를 직감할 수 없으니 의사소통이 될 리가 없다.

#### 4. 한국에서 잘못 쓰이고 있는 영어

우리는 흔히 영어 아닌 영어를 의사소통의 일환으로 한국식으로 사용하며 Konglish라고 한다. 김성익(1994: 234- 237)은 Konglish를 발음과 단어 두 가지 유형으로 구별하여 설명하고 있다. 한국인은 옳다고 사용한 영어가 영어 원어민을 당황케 하고, 원어민은 잘못 이해한다든가 이해를 전혀 못하는 결과를 가져 온다. 한국에는 영어인 것처럼 뿌리 박고 고정화된 것이 너무 많다. 이러한 것들을 조사하여 시정해야 할 영어 교육 정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 1) 설문내용

문화생활과 밀접한 어휘 10개를 선정하여 간단한 회화문을 만들어 한남대학 영문학과 3학년 49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다음은 한국에서 잘못 쓰인 영어이다. 빈칸에 옳은 영어로 고쳐 쓰시오.

1. a. 그것 서비스(service)로 주십시오.  
b. Would you like to give it to me \_\_\_\_\_ ?
2. a. 나의 핸드폰(handphone) 번호는 011-599-8354 이니까 언제나 연락 주십시오.  
b. My \_\_\_\_\_ number is 011-599-8354. Get in touch with me any time you like.
3. a. 이번 경기에서 최선을 다하라. 파이팅(fighting)!  
b. Do your best in this coming game. \_\_\_\_\_!
4. a. 나는 인도아(indoor)에 가서 한시간 동안 골프 연습 하겠습니다.  
b. I'll practice golf on the \_\_\_\_\_ for an hour.

5. a. 내 차 윈도우 브러시(window-brush)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b. The \_\_\_\_\_ of my car do not work at all.
6. a. 백 밀러(back mirror)가 잘 보입니까?  
b. Is the \_\_\_\_\_ well adjusted?
7. a. 오토바이(auto bi)가 필요한데 좀 빌려 주시겠습니까?  
b. I need a \_\_\_\_\_. Will you lend it to me, please?
8. a. 이 컴퓨터를 사시면 5년간 아프타 서비스(after service) 해 드립니다.  
b. You can buy this computer with a five year \_\_\_\_\_.
9. a. 할 일도 없는데 아이쇼핑(eye shopping)이나 갑시다.  
b. We have nothing to do now. Let's go \_\_\_\_\_.
10. a. TV 골든타임(golden time)에는 광고료가 비쌉니다.  
b. Television commercial expense is highest in \_\_\_\_\_.

## 2) 조사결과

표 5  
한국에서 잘 못 쓰이고 있는 영어

문제유형	학 년	문제수	응답자수	정 답 자 수		평 균
한국에서 잘못 쓰인 영어	영문 3	10문제	49명	1번	21명	43.0%
				2번	9명	18.4%
				3번	0명	0%
				4번	0명	0%
				5번	5명	10.2%
				6번	7명	14.2%
				7번	38명	78.0%
				8번	3명	6.1%
				9번	28명	57.1%
				10번	9명	18.4%
				평균 : 12명	평균: 24.4%	

1번 21명 (43.0%), 7번 38명 (78%), 9번 28명 (57.1%)으로 정답자 비율이 비교적 높은 편이나 영어전공 학생이라는 점에서 보면 만족스럽지 못한 수치다. 기타 문제는 비율이 매우 낮고 평균 24.4%에 불과한 것은 영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주목을 해야 할 분야가 될 것이다.

### 3) 문제점

특히 이 부분은 의사 소통상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1번의 service의 개념은 한국인에게는 무료, 공짜인 반면 영어 원어민에게는 유료이기 때문에 정반대의 의미로 의사 소통을 하고 있다. 정답은 "free of charge"가 될 것이다. '이것은 서비스로 드립니다'는 "It's on the house" 또는 "It's free"가 될 것이다. 3번의 정답은 "Way to go"이다. 이 정답을 아는 한국 학생은 많지 않은 것. 한국인에게 파(화)이팅은 고정된 격려의 스포츠 용어가 되었다. 4번은 "driving range"가 될 것이다. 한국에서는 골프 '인도아'가 뿌리 박고 있다. 5번은 "windshield wipers"가 정답이다. 6번은 "rearview mirror"가 정답인데 백 밀러가 차지한 비중은 너무나 크다. 7번은 "motorbicycle" 또는 "motor bike"가 정답이다. 한국에서는 뒷부분이 생략된 영어단어 (Apart, Televi, Auto bi 등)가 사용되는데 native speaker들은 사용하지 않는 용어들이다. 8번은 "warranty" 또는 "free service"가 정답이고, 9번은 "window shopping"이 정답이다. 10번은 "prime time"이 정답이다. 위와 같은 용어의 혼선은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요소로 지적된다.

### 5. 격언, 속담 (Proverb)

격언이나 속담은 영어에 proverb로 되어 있기에 같은 의미로 보아진다. 격언이란 어느 나라에서나 조상들의 삶에 대한 지혜를 말로 엮어 수백년, 수천년간 자연스럽게 전해 내려온 전통문화라고 볼 수 있다. 격언, 속담의 내용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어떤 불행한 꼬임에 빠지지 않도록 경각심과 절망에서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지혜의 보고라든 것이 공통적이다. 성서의 솔로몬의 잠언도 이런 의미에서 proverb로 되어있는 것.

Houghton (1981: 6)은 격언의 특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Proverbs put the salt, or the spice if you will, into conversation and speech; a little well-trained wisdom sometimes can make impact, and perhaps even lighten a difficult situation. How often do we all say 'More haste, less speed', ...

격언은 명사들의 생활철학을 담은 간략한 문구이거나 아니면 분명 대중적 지혜의 글인데 작자미상으로 민속생활을 통하여 전해지고 있다. 격언을 많이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은 교양이 풍부하고 유능한 대화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보아진다. 어느 나라 사람이나 살아가는 본질이 같기 때문에 격언도 공유된 것이 많다. 다음은 한국속담과 영어속담의 공통된 것을 20개를 골라 영문학과 4학년 50명을 대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가를 조사하였다.

### 1) 설문내용

설문지에는 영문정답이 없었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영문을 병행하였다.

1. 옷이 날개다.  
Clothes make the man.
2. 이웃 사촌이다.  
What are neighbors for?
3. 고양이한테 생선 가게 맡기는 꼴이다.  
It's like having the fox guard the henhouse.
4. 밀저야 본전이다.  
Trying wouldn't hurt.
5. 도랑 치고 가재 잡고(일석이조)  
Killing two birds with one stone.
6.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Everyone has a skeleton in his closet.
7.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Too many cooks spoil the broth.
8.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The pot calls the kettle black.
9.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A loaf of bread is better than the song of many birds. (조화유, 1995 V.2 p.200)



10. 떡 줄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  
Don't count your chickens before they hatch.
11. 지성이면 감천이라. (천명을 다하고 운을 기다려라)  
God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12. 참을 인(忍) 자가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  
Count to ten.
13.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Look before you leap.
14. 급히 먹는 밥이 체한다.  
Haste makes waste.
15. 팔은 안으로 굽는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Blood is thicker than water.
16. 우는 아이가 젖을 얻어먹는다.  
The squeaky wheel gets the oil.
17. 굴러가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는다. (우물도 한 우물을 파라.)  
A rolling stone gathers no moss.
18.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The journey of a thousand miles begins with the first step.  
(from China)
19. 대기만성(大器晚成)이라.  
Rome was not built in a day.
20. 시작이 반이다.  
Well begun is half done.

## 2) 조사결과

표 6  
격언·속담

문 제	정답자	문 제	정답자	문 제	정답자
1	0명	8	0명	15	5명 (10%)
2	0명	9	0명	16	0명
3	0명	10	0명	17	5명 (10%)
4	0명	11	5명 (10%)	18	0명
5	0명	12	0명	19	5명 (10%)
6	0명	13	0명	20	0명
7	0명	14	0명		

위 표는 50명을 대상으로 문항별로 조사한 결과이다. 11번 'God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가 10%, 15번 'Blood is thicker than water.'가 10%, 17번 'A rolling stone gathers no moss.'가 10%, 19번 'Rome was not built in a day.'가 10%로 나타났다. 각 10%의 정답률은 격언에 관한 한 의사소통에 전혀 미치지 못한 수치이다. 그러나 10%의 정답률이 나온 것은 이 격언들이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익숙해 있었고 나머지 16개 문항은 학생들이 전혀 손조차 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6. 인터뷰상에 나타난 사고방식과 영어표현의 차이

한국인이 말하고 쓰고 듣는 영어는 원어민들의 영어와는 다른점이 너무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의 언어습관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인은 한국어와 영어의 언어체계가 다른 것에 대한 상식이 결여되어 있고, 영어의 어휘구조를 습득할 때 상응하는 한국어의 어휘와 구조를 짚지워 배우려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을 신현제 교수 (1982: 106-121)는 '국어의 전이로 인한 오류의 유형'으로 설명하고 있다. Kosofsky (1987: VI)도 그의 저서 *Common Problems in Korean English* 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Korean speakers of English sometimes use words and phrases to mean something different from what native English speakers mean by the same expressions. ... such confusions of meaning are 'problems' in various sense.

결국 의사소통의 문제는 problems in grammar, problems in meaning, awkward or inappropriate language caused by different thinking pattern으로 요약될 수 있다.

### 1) 설문내용

다음 인터뷰에 관한 대화는 영어표현에서 한국적 사고방식과 미국적 사고방식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첫째, acceptable English (원어민의 영어) 둘째, understandable English (원어민은 사용하지 않지만 외국이나 외국인을 감안하여 이해 가능한 영어)로 구별하여 학생들로부터 어떤 답이 나오는가를 염두해두고 설문지를 만들어 한남대학 영문학과 3학년 53명, 배재대학 영문과 3학년 45명, 한남대학교 영문학과 4학년 55명, 계 153명을 대상으로 영문을 한국말로 옮겨 조사하였다.

설문과 밑줄 친 부분

1. A : 첫 월급은 얼마를 원하십니까?  
B : 전 직장에서는 주당 750불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것보다 좀 더 주십시오.
2. A : 좋습니다. 채용될 경우 의사할 수 있습니까?  
B : 요구하신 대로 할 수 있습니다.
3. A : 그러면 보증인이 있습니까?  
B : 요구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4. A : 좋습니다. 이것으로 인터뷰 끝났습니다. 김선생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B : 감사합니다.
5. A : 이틀 후에 인터뷰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B : 감사합니다.

정답 (Acceptable English - native speaker's way of thinking)

1. A: What kind of starting pay do you have in mind (or expect)?  
B: Well, I made \$750 per week at my last employment. So I'm expecting a little more than that.
2. A: All right. Can you relocate in case you're hired by us?  
B: Yes, I can.
3. A: By the way, do you have references?  
B: They are available on request.
4. A: OK. This wraps up the interview.  
Thank you for your time, Mr. Kim.  
B: Thank you, Sir.

5. A: We'll let you know the result of this interview in a couple of days.

B: Thank you.

## 2) 조사결과

표 7

인터뷰상에 나타난 사고방식과 영어표현의 차이

표현차 학교 (학년) 학생	H 대학 (3학년) 53명 (-%)	B 대학 (3학년) 45명 (-%)	H 대학 (4학년) 55명 (-%)
1. 얼마			
What (kind)...	0명 ( 0%)	0명 ( 0%)	11명 (20%)
How much ...	52명 (98.1%)	42명 (93.3%)	43명 (78.2%)
기 타	1명 (1.9%)	3명 (6.7%)	1명 (1.8%)
2. 원하다			
expect (have)	3명 ( 15%)	0명 ( 0%)	14명 (25.5%)
want	48명 (90.6%)	42명 (93.3%)	35명 (63.6%)
기 타	1명 (1.9%)	3명 (6.7%)	6명 (10.9%)
3. 첫 월급			
starting pay	0명 ( 0%)	1명 (2.2%)	27명 (49.1%)
first salary	49명 (92.5%)	19명 (42.2%)	28명 (50.9%)
기 타	4명 (7.5%)	25명 (55.6%)	0명 ( 0%)
4. 전직장에서			
at my last employment	0명 ( 0%)	0명 ( 0%)	0명 ( 0%)
at my former job	13명 (24.5%)	3명 (6.7%)	2명 (3.6%)
기 타	40명 (75.5%)	42% (93.3%)	53명 (96.4%)
5. 주십시오			
expect	0명 ( 0%)	2명 ( 4.4%)	1명 (1.8%)
want	39명 (73.6%)	12명 (26.7%)	24명 (42.6%)
기 타	14명 (26.4%)	31명 (68.9%)	30명 (54.5%)
6. 이사하다			
relocate	0명 ( 0%)	0명 (0%)	0명 ( 0%)
move	50명 (94.3%)	38명 (84.4%)	51명 (92.7%)
기 타	3명 (5.7%)	7명 (15.6%)	4명 (7.3%)

7. 보증인			
references	4명 (7.5%)	0명 (0%)	6명 (10.9%)
guarantor	30명 (56.6%)	3명 (6.7%)	3명 (6.7%)
기타	19명 (35.8%)	42명 (93.3%)	46명 (83.6%)
8. 할 수 있다.			
be available	0명 (0%)	0명 (0%)	2명 (3.6%)
can	39명 (73.6%)	22명 (48.9%)	27명 (49.1%)
기타	14명 (26.4%)	23명 (51.1%)	26명 (47.3%)
9. 인터뷰 끝나다.			
wrap up the interview	0명 (0%)	0명 (0%)	0명 (0%)
finish	17명 (32.1%)	20명 (44.4%)	25명 (45.5%)
기타	36명 (67.9%)	25명 (55.6%)	30명 (54.5%)
10. 이틀 뒤에			
in a couple of days	0명 (0%)	0명 (0%)	0명 (0%)
in (after) two days	19명 (35.8%)	22명 (48.9%)	34명 (61.8%)
기타	34명 (64.2%)	23명 (51.1%)	21명 (38.2%)

조사결과표안에 있는 1번 '얼마'에 대한 정답자는 153명중 4학년 11명 (7.19%)에 불과하였다. 얼마하면 'how much'가 고정문구 인 것처럼 학생들 머리 속에 입력되어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2번은 원한다고 다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expect' 나 'have'가 정답인데 3학년 53명중 3명 (5.6%), 4학년 14명(25.5%)에 불과했고 원하다는 무조건 'want'를 택했음을 보여주었다. 3번 첫 월급은 'starting pay'가 acceptable English인데 대부분 'first (month) salary'등으로 썼다. 4학년 27명 (49%)이 정답자인데 한국인 교수나 원어민 교수로부터 직접 배워 입력이 되어 있다고 그들은 말했다. 이 문제에서 알아야할 것은 우리나라는 월급제이지만 미국은 주급제이거나 연봉제라는 차이점이다. 4번에 전직장에서 '전'은 표현상에 문제가 된 부분이다. 이 경우 'last'가 정답인데 대부분 'former'로 썼고 정답자가 한사람도 없었다. 5번 ...주십시오는 한국말로는 겸손한 존대표현이지만 영어에서 보면 명령문이기 때문에 무례한 표현이다. 불행히도 정답자는 한명도 없었다. 상대방에게 기대하고 있는 의사를 표현한 것은 타협이고 'want'는 결핍, 부족해서 원한 것이나 꼭 주어 야 한다는 뜻이다. 6번 이사하다나 이주하는 것은 'relocate'가 미국인에게 확실하고 쉬운 용어다. 'move'는 몸이 움직이는 동작으로 운동이 중심이 되는 단어이고 remove는 물건의 장소를 옮기는 것이고 'He was removed from the town.'하면 '그는 그 마을에서 쫓겨났다'가 될 것이다. 필자가 기대했던 'relocate'를 쓴 정답자가 없었고 'relocate'라는 단어 활용을 거의 모르고 있었다. 7번 에 '보증인' 하면 재정보증인과 상대를 조회해 볼 수 있는 신용(신용)보증인이 있는데 대체로 미국적 사고 방식으로는 후자임으로 'references'가 정답이 될 것이다. 정답자는 3학년 4명 (7.5%),

4학년엔 6명 (10.9%)에 불과 하였다. 8번 '... 할 수 있다' 는 한국적 사고방식으로 는 무조건 'can...'으로 인식되었고 문맥상으로 보아 'be available'의 활용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9번은 '이것으로'와 연결된 문임으로 문맥상 'This wraps up' 이 좋는데 이것의 활용도는 모르고 'finish' 나 'be over'로만 처리하려고 했다. 10번 이를 뒤에 에서 'after (in) two days'는 understandable English이고 in a couple of days가 보편적으로 acceptable English가 될 것이다.

### 3) 문제점

위에서 기술한대로 문법상의 문제점, 어휘상의 문제점, 사고의식 차이로 발생한 문제점의 범위 내에서 어휘선택과 사고차이에 중점을 두고 인터뷰 대화문을 조사해 본 결과는 매우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의한다면 조사대상에 들어간 학생들은 영어실력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주시할 필요가 있다. H대 3학년 학생들은 5학기 동안 native speaker에게서 영어를 배웠고 4학년생은 6학기 동안 영어를 배워 대부분의 의사소통은 할 수 있고 본인들도 그렇게 자부하고 있는 학생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나쁜 것은 teaching program과 teaching activity개발에 문제가 있었음 일깨워 주는 일면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IV. 결론

지금까지 몸짓언어, 차에 관한 어휘, 색이 함축하고 있는 어휘, 잘 못 쓰이고 있는 영어, 격언, 인터뷰상에 나타난 사고방식과 영어표현의 차이를 언어와 문화인식이라는 측면에서 574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았다. 1980년대 이후로 많은 학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화에 대한 인식도와 언어구사와 의사소통의 결과는 III. 1-6에 있는 표가 지적한 것처럼 매우 나쁘게 나타났다. 위 사항에 대한 영어교육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학생들의 대부분이 받은 바 없다고 대답하였다. 본 논문에서 조사한 설문들은 문화와 어휘 인식의 측면에서 학생들이 영어를 배운 기간을 감안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인데 모르고 있음을 보여 준 것이 문제였다. 언어와 문화에 대한 중요성과 강조와 실천이 영어교육현장에서 병행하지 못하였고, 또한 등한시 되었으며 아직 이점에 관한한 유치기에 있음을 보여 주었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한다.

1. 언어와 문화교육에 대한 일관된 목표를 정책적으로 정립해야 한다.
2. 언어와 문화교육에 대한 방법론이 제시되어 보편적 인식이 되어야 한다.

3. 언어와 문화에 대한 다양한 program이 개발되어야 한다.
4. 언어와 문화에 대한 CD-ROM을 활용한 교수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5. 언어와 문화에 대한 교사들의 연수를 강화해야 한다.
6. 언어와 문화에 대한 내용을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많이 포함시켜 학습자들에게 반영되도록 해야한다.
7. 언어와 문화에 대한 시험문제 개발과 평가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 박 효 식. (1989). *미국영어 이래서 재미있다*. 서울: 시사영어사.
- 김 성 역. (1994). *미국영어 발음의 길잡이*. 서울: 매일영업사.
- 국민일보. (1994). "1초의 실수...미서 장역 3년" ('94. 8. 18. 기사제목), 서울
- 김 화 중. (1996). *색채심리* (김화중 역). 서울: 동국출판사.
- 박 명 식. (1969). "문화적 차이에 기인한 의사소통의 차이 - 한국과 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영어 영문학*, 59, 91-107.
- 박 명 식. (1983). "언어를 통해서 본 동서양의 차이" *외영 (外英)*, 창간호, 57-85.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과.
- 박 명 식. (1993) "Cross-Cultural Comparison Self-Monitoring : Korean and American Perception", *한국 커뮤니케이션학*, 창간호, 186-197. 서울: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 박 상 욱. (1985). "영어교육에 있어서 문화지도", *홍대논총*, 제 17집. 서울: 홍익대학교 출판부.
- 박 형 기. (1982). "영어교육의 입장에서 비교한 한국문화와 미국 문화의 특성" *영어 교육*, 23, 9-30.
- 신 현 제. (1982). "국어전의로 인한 오류의 유형", *영어교육*, 23, 105-122.
- 조 화 유. (1996). *이것이 미국영어다*. 서울: 조선일보사 출판부.
- 최 용 재. (1995). "Culture as a Background Knowledge in TEFL" *영어교육*, 50(1), 179-203.
- 최 은 경. (1993). "언어, 문화적 지식과 커뮤니케이션" *한국커뮤니케이션학*, 창간호, 3-12. 서울: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 Abercrombie, D. (1968). "Paralanguage", *British Journal of Disorders of Communication*, 3, 55-59.
- Birdwhistell, R. L. (1970) *Kinesics and context*.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 Houghton, P. (1981). *Proverbs*. London: Blandford Press.
- Ide, J. H. (1982). Teaching culturally appropriate English. *영어교육*, 23, 61-76.
- Klopf, Donald W., & Park, M.-S. (1982). *Cross-cultural communication*. Seoul: Hanshin Publishing Co.
- Kosofsky, D. (1987). *Common problems in Korean English*. 서울: 외국어 연수사.
- Stevic, E. W. (1982). *Teaching and learning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insley, R. L. Jr. (1972). "A Culture is a Culture is a ..." *The Arisona Foreign Language Teachers FORUM*, 19,(3). 2-6.
- Zanger, V. V. (1985). *Face to face*. Cambridge, Massachusetts: Newbury House Publishers, Inc.